



<김태균>

<추신수>

<이대호>

<김현수>

한국 거포들, 멕시코 잠재운다

김태균·추신수·이대호 등 타격감 회복

류현진 선발...오늘 낮 12시 2R 첫 대결



시차 적응 실패와 집단 감기 증세로 걱정을 안겼던 야구대표팀이 결전을 앞두고 회복 기미를 보였다. 대표팀은 15일(이하 한국시간)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라운드 경기가 벌어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1시간30분 동안 공식 훈련을 하고 컨디션을 조율

했다. 9일 에리조나주 피닉스에 도착 후 13일까지 머물면서 시차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했던 대표팀은 미국 도착 첫날부터는 이날 한층 가벼워진 몸놀림을 보였다. 김태균(한화), 이대호(롯데), 추신수(클리블랜드) 등 중심 타자들은 구장 스탠드 중간에 떨

어지는 대형 홈런을 평평 터뜨리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스프링이 감겼던 피닉스에서는 연습 배팅 때도 장타는 나오지 않았다. 감기 증세가 여전한 이대호는 "여전히 좋지 않다"고 했고 추신수도 "아직 타이밍이 안 맞다"고 말했지만 멕시코와 운명의 일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수들의 집중력도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미국프로야구 팀과 두 차례 평가전에서 실책을 연발, 불안감을 노출했던 유격수 박기혁(롯데)은 "땅이 너무 부드럽다. 수비할 때 패이져 않아 좋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과 이순철 타격 코치는 이

구동성으로 "피닉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낫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4강행에 결정적인 열쇠를 쥔 투수들의 컨디션도 점점 나아졌다. 양상문 투수코치는 "야수보다 투수들은 페이스가 좋은 편이다. 장대현(SK), 임창용(야쿠르트) 등 볼펜의 핵은 계속 좋은 편이고 1라운드에서 부진했던 이재우(두산)와 오승환(삼성) 등도 좋아져 마운드 운용에 승용이 트였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경기와 메이저리그와 평가전에서 연속 부진했던 김광현도 12일 볼펜 투구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며 조만간 제 구위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이봉주 '40회 완주' 아름다운 퇴장

'마라톤 인생' 끝났지만 '인생 마라톤' 계속 됩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9·삼성전자)가 국내서 열린 '고별 마라톤 대회'에서 비록 14위에 머물렀지만 개인 통산 40번째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다. 이봉주는 15일 오전 세종로~잠실 종합운동장 간 42.195km 코스로 열린 2009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0회 동아마라톤대회 남자부 엘리트 경기에서 2시간16분46초에 그쳐 전체 14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사실상 은퇴 경기로 나선 이번 마지막 풀코스 대회에서 이봉주는 기록과 순위에서 모두 뒤졌지만 40번째 완주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풀코스를 40번이나 완주한 마라토너는 국내에서 이봉주뿐이며 세계적으로 드문 대기록이다. 40세 가까이 현역에서 활동했던 '달리는 철학자' 스티브 모네키티(호주)가 아마추어 대회까지 포함해 40차례 정도 완주했을 것으로 추정될 뿐 풀코스 완주에 대한 공식 집계는 없다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설명했다. 이봉주는 결승선을 통과한 뒤 인터뷰에서 "아쉬움도 많지만 마음은 후련한 것 같다. 홀가분한 느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봉주는 이어 "워낙 몸이 안 좋아 오늘 자신감 있게 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초반부터 선두권을 따라가면 잘 못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1990년 전국체전에서 마라톤에 입문해 그동안 20년 가까이 마라토너로 활약한 소감을 묻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기억들은 모두 뒤로 하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새 출발을 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선수 생활이 끝나면서 다른 길을 걸어 가야 하는 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쉬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봉주는 그동안 자신이 출전했던 대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개 대회를 꼽기도 했다. 이봉주는 "1996년 애플랜드 올림픽에서 2위를 차지한 것과 2001년 보스턴마라톤에서 정상에 올랐던 대회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레이스 도중 넘어지는 불운으로 24위에 그쳤던 대회도 떠올렸다. 이봉주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민의 많은 관심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해 주셨다"면서 "관심이 없었다면 정말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는 후배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모세스 아루세이(케냐)는 30km 지점부터 선두로 치고 나와 여유 있게 레이스를 펼친 끝에 2시간7분 54초로 1위를 차지했다. 아루세이는 우승상금 8만달러를 받았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지영준(경향대학교)이 2시간10분41초로 가장 빨랐으며 전체 순위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야구종가' 미국 치욕의 콜드패

중남미의 강호 푸에르토리코가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라운드에서 메이저리거들의 투타에 걸친 맹활약을 앞세워 '야구 종가' 미국에 콜드게임승을 거두는 이변을 일으켰다. 푸에르토리코는 15일(한국시간) 마이애미 돌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WBC 2라운드 2조 두번째 경기에서 타선이 폭발해 미국에 11-1의 예상 밖 대승을 거뒀다. '메이저리그 올스타급' 전력으로 무장, 첫

WBC 대회 4강 진출 실패의 수모를 달고 이번 대회 정상에 야심차게 도전한 미국은 패자전으로 밀려나 탈락의 위기에 몰렸다. 푸에르토리코는 1회말 1사 1,3루에서 메이저리거 카를로스 델가도(뉴욕 메츠)의 1타점 적시타와 알렉스 리오스(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희생플라이로 가볍게 2점을 먼저 뽑았다. 푸에르토리코 타선은 2회 무섭게 폭발했다. 무사 주자 1루에서 펠리페 로페스(에리조나나

푸에르토리코전 1-11 패 패자전 밀려 탈락 위기

이아몬트백스)가 미국 선발 제이크 피비를 상대로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뽑아내며 4-0으로 앞서갔다. 이후 카를로스 벨트란(뉴욕 메츠)의 내야안타로 1점을 추가한 푸에르토리코는 델가도의 유격수 땅볼로 한 점을 더 뽑아내 점수는 순식간에 6-0으로 벌어졌다. 미국이 한 점을 쫓아온 5회말 2사 2루에서 '땅 딸보' 이반 로드리게스가 우익수 앞 2루타로 주

자를 불러들여 추격 사정권을 벗어난 푸에르토리코는 7회말 선두타자 벨트란이 미국의 바뀐 투수 매트 손튼(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공을 왼쪽 담장 뒤로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8-1을 만들어 미국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10승 투수 제이크 피비(샌디에이고)가 20년 동안 6점이나 내주는 등 투수진이 푸에르토리코 강타선에 맥없이 무너져 치욕의 콜드게임패를 당했다. 앞서 열린 2라운드 2조 첫 경기에는 베네수엘라가 선발 투수 카를로스 실바의 호투와 홈런 두 방을 앞세워 동쪽의 네덜란드를 3-1로 제압했다. 시애틀 매리너스 소속인 실바는 7이닝 동안 투구수 79개 만으로 삼진 4개를 뽑으며 4안타 1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이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5회말 1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살 빠진 최희섭, KIA 해결사 됐네

SK전 홈런포에 결승타 시범경기 2연승 이끌어

최희섭의 타력을 앞세운 KIA가 시범경기 2연승을 달렸다. KIA 타이거즈는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투·타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5-2로 승리했다. 전날 홈런포를 가동시켰던 최희섭은 5회말 끝판왕 우전 안타로 2타점을 올리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고, 7회에는 SK 조동화의 안타성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다. 경기 초반 타선의 집중력이 아쉬웠다. KIA는 1회말 테이블 세터로 나선 이현근과 이종범의 연속안타가 터지면서 대량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이재주의 좌전안타로 1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3회에도 연속 볼넷으로 1사 1,2루의 찬스를 맞았으나 후속타 불발로 추가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SK의 역습을 받았다. 4회초 3루수 안치홍이 SK 선두타자 박정환의 감속타구를 호수비로 막았으나 1루 악송수로 무사 1루가 됐다. 앞선 3회까지 피안타 없이 3개의 삼진을 잡아냈던 양현종이

안경현과 윤상균에게 볼넷과 안타를 허용하면서 1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고, 모창민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자던 타선이 5회 살아났다. 연속안타와 볼넷을 묶어 1사 만루, 1회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최희섭이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투수 니코스키의 유인구에 연속으로 헛스윙을 하며 투 스트라이크, 볼을 하나 골라낸 최희섭은 깔끔한 우전안타를 만들어내며 2·3루에 있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연속 볼넷으로 다시 1사 만루, 안치홍의 땅볼을 처리하던 SK 3루수 모창민의 실책으로 1점을 추가한 KIA는 5-1로 앞서나갔다. 타선의 지원을 받은 마운드도 9회 1실점 하기는 했지만, 완벽한 호흡을 과시하며 팀의 승리를 지켜냈다. 선발 양현종은 3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4와 3분의 2이닝동안 2피안타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면서 마운드를 지켰고, 직구 최고 구속도 148km를 기록했다. 양현종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손영민은 5회 세 타자를 연속 땅볼로 돌려 세우는 등 깔끔한 투구를 선보였다. 7회와 8회를 책임진 김현수와 조재수도 탈삼진 하나씩을 포함, 삼자범퇴를 잡아내며 한층 탄탄해진 볼펜 전력을 보여줬다. 한편 KIA는 14일 SK와의 시범경기 첫 경기에서도 최희섭의 솔로포와 이종범의 결승희생타로 4-3으로 승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